



볼넷 타석당 1위·100 死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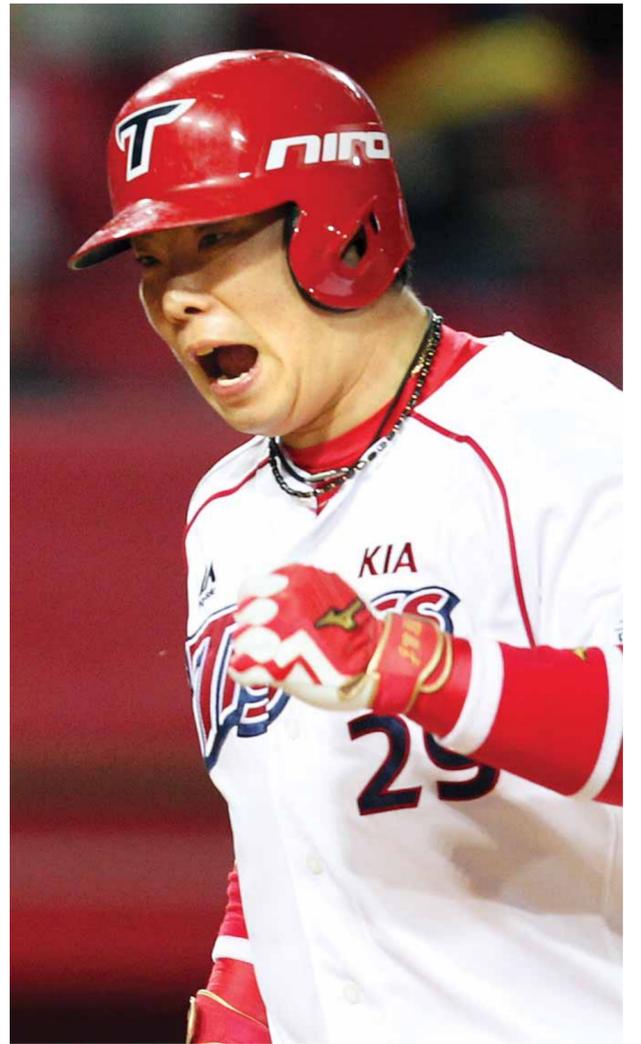
되찾은 3할 타율



출루율 4할·장타율 5할대



홈런 두자릿수 눈앞



선구안 눈 뜬 '나'는 4번 타자

KIA 나지완이 달라졌어요

눈으로 이야기하는 나지완이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잃어버렸던 '4번 타자' 타이틀을 되찾았다. 지난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나지완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이를 악물고 준비를 했던 지난 겨울, 시범경기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 나지완은 '4번 타자'에 맞는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했던 "민폐를 끼치는 선수가 아닌 도움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황당한 수비 실수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2군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공격에서는 나지완의 면모를 되찾았다. 141타석을 소화한 25일 현재 그는 0.305의 타율로 20타점을 만들었다. '30개의 홈

런'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지난해 7차례 담장을 넘기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7개를 넘어서었다. 나지완의 개인 역대 최다 홈런은 23개. 지난해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는 실패했지만 타고난 힘이 있다. 여기에 날렵해진 몸으로 2012년 이후 4년 만에 3루타를 때리기도 했고, 2루타도 6개를 기록하는 등 장타율은 자신의 역대 최고 수준인 0.581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눈'도 달라졌다. 나지완은 "선구안이 나쁜 편이 아닌데 지난해에는 좋지 않은 공에 손이 많이 나가고 내 승부를 하지 못했다. 올해는 볼을 잘 골라내고 있다. 이게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나지완은 24일까지 35경기에 나와 141타석에 나왔지만 기록된 타수는 105. "진짜 아프다. 100타석은 시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웃을 정도로 일단 몸에 맞는 볼이 많다. 나지완은 올 시즌 7개의 死구로 선배 이범호(97개)에 앞서 통산 22번째로 100타석을 돌파했다. 나지완은 "몸쪽에 약하다 보니 상대가 몸쪽을 많이 던진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타석에서 조금 떨어져서 공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분하게 골라낸 볼넷도 28개다. 한화 김태균(33개·191타석), SK 최정(31개·196타석), 롯데 손아섭(31개·198타석), 롯데 최준석(31개·189타석), 삼성 최형우(30개·199타석), 롯데 강민호(29개·164타석)에 이어 전체 7위. 타석당 볼넷 수로 따지면 나지완이 1위다. 당연히 출루율이 경종 뛰었다. 지난해 0.378이었던 출루율은 올 시즌 0.475로 뛰어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번 타자 나지완도 여색하지 않다. 나지완은 지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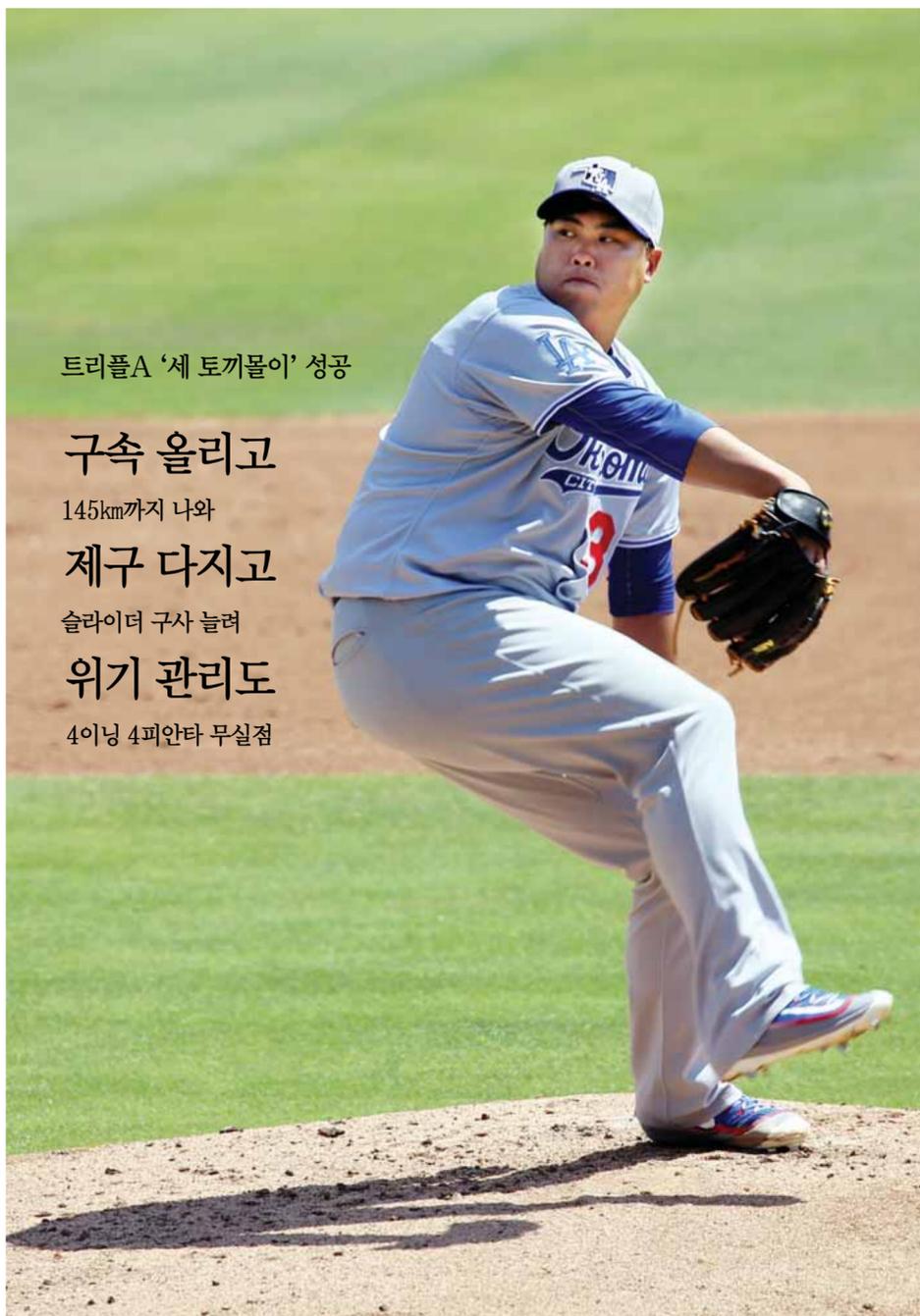
일 SKI와의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나름 파격적인 배치였지만 '출루율왕'을 다투고 있는 만큼 이상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라인업을 소개하던 김기태 감독이 "다들 놀라지도 않는다"라고 웃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날 나지완은 처음 두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내는 등 세 타석에서 1루 베이스를 밟으며 2번 타자 역할을 수행했다. 열심히 걸어가는 만큼 25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자신의 역대 최다(64개) 득점도 노려보고 있다. 나지완은 "물론 중심타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쳐야 하는 것도 있지만 침착하게 고르면서 최대한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선구안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B/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ML 복귀 속도

지난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복귀를 앞두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류현진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 척센시 파크에서 프레즈노 그리즐리스(휴스턴 에스트로스 산하 트리플A 구단)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마이너리그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4이닝 동안 공 55개를 던져 안타 4개만 내주고 삼진 3개를 걸으며 실점 없이 강판했다. 이전 두 차례 등판이 마이너리그 상위 싱글A 팀 대상이었다면 이번엔 메이저리그에 근접한 트리플A 선수를 상대로 끝판왕 투구를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류현진은 이날 등판에서 세 가지 토크물이에 성공했다. 구속도 올리고 필살기인 슬라이더의 구사 빈도를 높여 제구를 시험했다.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전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실점하지 않은 것도 큰 수확이다. 류현진은 어깨가 풀린 4회, 프레스턴 터커에게 잇달아 시속 145km짜리 가장 빠른 볼 2개를 던졌다. 3회까지 이전 등판 때의 최고 구속이던 시속 143km에 머물던 그의 공이 조금 더 빨라진 것이다. 15일부터 마이너리그에서 닷새 간격으로 등판 중인 류현진이 투구수, 이닝 수와 함께 구속도 덩달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재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는 "구속을 좀 더 올리도록 힘을 기르겠다"며 "오늘은 슬라이더도 어느 경기보다 많이 던졌다"고 소개했다. 2013년 빅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한국 무대를 평정한 체인지업으로 큰 재미를 봤다. 미국 무대 2년째엔 고속 슬라이더를 스스로 연마해 커브, 체인지업과 함께 3대 필살기로 키웠다. 위기관리 능력도 이날 합격점을 받았다. 류현진은 1회 1사 후 1루수의 기록되지 않은 실책으로 첫 주자를 내보낸 뒤 두 타자를 내야 땅볼과 삼진으로 처리했다. 2회에도 1사에서 2루타를 맞았지만 두 타자를 번타로 요리했고 3회 1사 1·3루에선 병살타를 유도했다. 류현진은 4회 2사 후 안타를 내줬지만 역시 다음 타자를 날카로운 변화구로 땅볼로 요리했다. 아직 100% 컨디션을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빅리그 실전으로 가정하고 최선을 다해 위기를 넘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류현진은 투구와 별도로 수비, 타격 연습도 실내에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트리플A '세 토끼몰이' 성공

구속 올리고
145km까지 나와
제구 다지고
슬라이더 구사 늘려
위기 관리도
4이닝 4피안타 무실점



전국소년체전 28일 강원서 개막

광주·전남 선수단 2100여명 참가

미래 한국 체육을 이끌어갈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소년체전대회에 나서 뜨거운 메달 경쟁을 펼친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 45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 1054명의 선수단(선수 739명·임원 315명)을 파견,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주에는 레슬링·자전거·양궁·소프트볼 등 3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캔다.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19개·은메달 16개·동메달 43개를 획득, 종합 12위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44회 소년체전'에서는 종합 10위(금메달 21·은메달 30·동메달 28)를 차지한 바 있다. 광주에서는 봉산중의 여자 소프트볼 6연패 달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봉산중은 지난해까지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도내 73개 초등학교와 74개 중학교에서 810명의 선수(초등 287·중등 523명)를 선발한 뒤 임원을 포함, 1132명의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참가한다. 전남 선수단은 오는 31일까지 35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30개·은메달 14개·동메달 27개 등 메달 71개를 따 종합 5위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각오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의 경우 12위(금메달 20·은메달 27·동메달 29)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초·중학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두드러지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박해정(여·15·전남체육중 3년)의 멀리뛰기 4연속 금메달 획득 여부다. 박해정은 초등학교 6학년때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7살부터 90대까지...체육동호인 한마당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9일까지 서울 등서

7살 어린이부터 92세 할아버지까지 참여하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6일 개막,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 선수단 및 동호인, 시민 등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광주·전남에서도 1700여명이 참여한다. 축제는 27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 37개 경기장에서 오는 29일까지 펼쳐지며 선수들은 모두 46개 종목(정식 종목 36개·게이트볼 등 10개)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광주에서는 수영·농구·당구·스쿼시·씨름 등 29개 종목에 665명의 동호인이 화합과 우정을 다지며 축제를 즐긴다는 방침이다. 김종재(92)씨는 광주 대표 중 최고령으로 게이트볼에 나서 노약장을 과시한다. 전남도 김우현(7·인라인 스케이트)군을 비롯, 1087명의 동호인 선수단을 꾸려 27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전남도 선수단은 특히 이번 축전과 개막식 기간, 순천만 정원, 낙안읍성, 장흥국제통합과학박람회 등을 홍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김현수 분노의 3안타

김현수(28·볼티모어)가 6경기 만에 선발로 출전해 안타 3개와 볼넷 1개로 첫 4할루 경기를 펼쳤다. 김현수는 26일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스 방문경기에 9번 타자 좌익수로 출

전했다. 6경기 만에 선발 출장한 김현수는 2회 첫 타석부터 볼넷을 골랐다. 5회에는 우측으로 총알 같은 공을 날리며 2루까지 나갔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또 2루타를 터트리며 한 경기 첫 장타 2개를 터트렸다. 8회에는 시즌 두 번째 3안타 경기와 첫 4할루 경기를 만들었다. 팀은 3-4로 졌다. /연합뉴스